

치과 치료는 감염·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

건강 바로 알기 임플란트와 감염

이원표 조선대치과병원 치주과 교수

‘코로나19’ 사태로 온 세상이 떠들썩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 개월째 거리가 한산하다. 거리가 나선 사람들도 하나같이 마스크를 쓰고 발걸음을 재촉한다. 치과계 또한 지역 사회 감염이 현실화되면서 병원 감염 발생에 대한 불안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병원에서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말 그대로 ‘병원감염’이라고 부른다.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도리어 다른 병을 얻어 가는 경우인 것이다. 병원은 각종 병균에 노출되기 쉬운 곳이다. 의사의 손, 치료 도구, 병실 침대도 전염병의 매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병원감염 발생 비율은 입원환자의 3.7~15.5% 가량인데, 평균적으로 10명 중 한 명 꼴이라고 한다.

‘코로나19’ 감염을 차지하더라도 치과 치료는 침습적 처치가 많은 관계로 감염관리도 매우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일 것이다. 가장 간단한 잇몸관리 중 하나인 스케일링에서부터 치아의 신경을 긁어내고 인공재료를 채워 넣는 신경치료 등 치과에서 병원 감염의 경로는 다양하다. 치료 도중에 발생하는 환자 또는 의료진의 혈액과 구강

의료장비 등 제대로 소독하지 않으면 결핵·파상풍 발생 원인 감염관리 특화된 임플란트센터 운영 효과 ‘병원감염’ 걱정 뚫

분비물은 다양한 박테리아 서식지가 될 수 있다. 진료수에 의한 세균 감염은 배관과 수관을 제대로 소독하지 않아 발생하는 데, 오염된 물로 입 안을 헹글 때 면역력이 낮은 환자들은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

의료 장비가 문제인 경우도 있는데 치과용 드릴인 핸드피스 등의 경우, 제대로 소독하지 않으면 결핵과 파상풍의 원인인 포도상구균·사상구균 등에 감염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복잡한 단계를 거쳐 진행해야 하는 임플란트 치료는 감염관리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임플란트(인공치근)는 치주병(잇몸질환, 풍치), 치아우식, 외상 등에 의해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 식립하는 치과 치료이다. 임플란트 치료는 자연치를 삭제하지 않는다는 점과 임플란트에 일반 틀니를 연결하여 일상 생활을 하는 도중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조선대치과병원은 각각의 환자에 맞는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진단과정에서부터 수술 및 보철치료까지 모든 임플란트 시술 과정을 최신의 기술과 장비를 이용해 시행 가능하도록 일찍이 전문화된 임플란트센터를 199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 년간 메르스 사태와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 C형간염 사고, 대형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고 등의

로기관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 대대적인 센터 리모델링 확장공사를 진행해 올해 1월 보건복지부 인증의 감염집중관리 임플란트센터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조선대치과병원 3층에 위치한 감염집중관리 임플란트센터에서는 임플란트 수술을 위한 감염관리에 특화된 독립된 4개의 수술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검사, 진단 및 관련 임플란트 보철 진료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외래진료실을 갖추고 있다.

요즘에는 치과에서 감염관리에 대해 관심 갖는 환자들이 많아졌다. 치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치과 선택 시의 최우선 고려사항이 위생 및 감염관리 상태라는 응답이 27.0%로 가장 높았다는 보고도 있다. 치료기술 뿐만 아니라 진료환경 및 진료실 내 감염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이원표 치주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치과 내 병원감염에 대해 더욱 민감해진 이 때, 감염관리에 특화된 조선대 치과병원 임플란트센터는 환자들이 감염 걱정 없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치과병원 이원표 교수가 50대 환자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있다.

〈조선대치과병원 제공〉

광주기독병원, ‘환자 안전·감염 관리’ 주간행사 실시

코로나19 지침 준수하며 직원·환자·내원객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광주기독병원(병원장 최용수)이 ‘슬기로운 환자안전! 덕분에 감염관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최근 ‘제13차 환자안전·감염관리’ 주간행사를 펼쳤다. <사진>

광주기독병원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직원, 환자, 내원객을 대상으로 ▲n행시의 세계 ▲untact 퀴즈야 놀자(핸드폰을 통해 퀴즈 풀기) ▲환자안전 OX퀴즈(리더십 환자안전 라운딩 및 환자안전 참여활동 키펀) ▲레벨 D 책탈의 화이트 체험방 ▲폴샷(폴라로이드)과 함께 하는 우리의 다짐 ▲포스트코로나 포스트마이폰 오염도 측정 ▲환자안전 감염관리 인증벨을 울려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최용수 광주기독병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자안전과 감염관리는 더욱 강조되고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면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준비된 환자안전·감염관리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준 직원과 환자 및 보호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의료진, 국제임상연구 2건 총 13억원대 수주

전남대학교병원 의료진이 최근 국제적 제약기업과 의료기기업체 2곳으로부터 총 13억원대 규모의 국제 임상연구를 수주했다.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조정훈·정명호 교수팀은 다국적 제약사인 암젠으로부터 ‘한국인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기반 의료 활동: 실험과학 연구’라는 제목의 임상연구를 국내 10개 대학병원을 대표해 앞으로 3

년간 진행기로 했다.

또 다국적 의료기기업체인 보스턴사와는 현재 진행 중인 ‘SAMIR1’ 연구에 이어 ‘SAMIR2’를 수주해 향후 5년간 연구를 지속하게 됐다. 이번 연구를 위해 암젠과는 9억 1000만원, 보스턴과는 4억 5000만원 연구비를 각각 수주했다.

이 같은 연구수주 성과는 전남대병원이 지난 2005년부터 한국인 급성심근경색증 등록연구 사업을 주도하면서 17년 연속 대



조경훈 교수 정명호 교수

한심장학회 최다연구논문 발표 등 국내 최고수준의 연구결과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병원, 대장암·마취 적정성 평가 ‘1등급’

조선대병원(병원장 정중훈)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장암’ 및 ‘마취’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 질환으로, 암 중 대장암은 암 사망률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구화된 식습관 및 흡연과 음주의 증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대장암 평가 지표 중 ▲ 전문인력 구성 여부 ▲ 수술 전 정밀검사 ▲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의료계 전체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1등급에 선정됐다.

이와 함께 마취 관련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

고자 2018년 진료분을 대상으로 심평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마취 적정성 평가 역시 1등급을 획득했다. 마취 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 구조 지표(시설·인력 등) ▲ 과정 지표(안전관리 활동) ▲ 결과 지표(마취 중·후 환자 상태)에 대한 이번 평가에서 조선대병원은 의료계 전체 평균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지역 대표 병원임을 재차 확인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